

한나라 “입당하라” 무소속 “벌써부터?”

단체장·의원, 이명박·박근혜 간 처신 고려 입당 미뤄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경북의 무소속 기초자치 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지방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입당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대조적이다. 이에 이들의 입당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광원)이 13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연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핵심은 이태근(고령), 김복규(의성), 박영언(군위), 정윤열(울릉) 등 4곳의 기초단체장 입당 여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지역 정서상 단체장들이 한나라당 간판을 하루빨리 달 것으로 점쳐지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단체장은 한나라당 입당에 ‘느긋한’ 반면 한나라당이 이들 단체장의 입당을 서두르고 있다. 대선에서 이들 단체장이 꼭 필요해서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재입당을 공약으로 내건 이고령군수 경우, 지난 연말 이인기(칠

곡·고령·성주) 국회의원과 만나 재입당을 하기로 의견 정리를 했었다. 하지만 도당은 “이 군수가 아직 입당원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재입당에는 변화가 없으나 지금은 (입당 시기가) 아니다. 지역 당 조직에서 재입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상태에서 당에 입당할 경우, 지역 분열만 생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3선인 이 군수의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고, 당내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당 대표 간 경쟁구도에서의 처신 문제 등으로 이 군수가 입당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정치권에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기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당내 경선 경북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표 캠프에 발을 담근 김재원 국회의원의 지역구 단체장인 김의성군수와 박 군위군수도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선 ‘관망’ 중이다. 김 의

원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후 두 군수와의 관계 회복을 꾀해 왔다. 몇 차례 만나 지역 화합을 요청했고, 한나라당 입당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화합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두 군수의 한나라당 입당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군수는 사석에서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심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러브콜에도 두 군수는 ‘무응답’으로 응수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은 “빨라야 당내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이들도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울릉군의 정윤열 군수 역시 최근 사석에서 “지금은 한나라당 입당을 논할 시기다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